

http://dx.doi.org/10.17703/JCCT.2022.8.1.371

JCCT 2022-1-42

한국어 신조어 교육의 가치와 자료 구축을 위한 시론

Research on the Value of Korean Neologism Education and the Method of Building Data

김덕신*

Kim Deok-shin*

요약 이 연구는 그간 학습 결과, 교육적 결과물, 객체를 우선시하느라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다루지 못한 '과정'으로 서 주목해야 할 대상과 학습자는 없는지 검토한 후, 신조어의 교육적 가치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자료구축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과정' 중에 빠진 사각지대 어휘로는 신조어를, 사각지대 단계의 학습자로는 외국인 학문 목적 학습자를 들고,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신조어를 가르치기 위한 학습 자료로 사전을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신조어 '단층적 목록' 만들기를 제안하였다. '단층적 목록'은 신조어를 시기별로 조어, 의미, 문화 등으로 나누어 자료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그간 한국어 어휘교육에서 구축한 결과물에 '과정'으로 학습으로 할 어휘를 추가하여 한국어 어휘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주요어 : 신조어, 혼성어, 두자어, 단층적 목록, 교육과정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are subjects and learners to pay attention to as 'processes' that have not been dealt with in Korean vocabulary education due to prioritizing learning outcomes, educational outcomes, and objects.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ducational value of the neologism and to suggest data construction method for it. Proposal to create a 'single-level list' of neologisms as a preliminary work to create a dictionary as a learning material to teach new words to academic purpose learners, taking neologism as the vocabulary in the blind spot and foreign academic purpose learners as learners in the blind spot stage. did The 'single-layered list' is to divide new words by period into coined words, meanings, culture, etc. and construct them as data. Through this study, we will help systematically teach Korean vocabulary by adding vocabulary to be learned as a 'process' to the results of Korean vocabulary education so far.

Key words : Neologism, Mixed Words, Acronyms, Monolayer List, Curriculum

1. 서론

지금까지 외국어 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언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학습 결과, 교육적 결과물, 객체를 우선으로 했다.

Tyler(1987) 이래로 교육과정 연구는 목표나 학습의 결과를 기술하거나 규정하는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Pinar(2004)에 의해 주창된 새로운 교육과정 연구는 '코스에서 한 학습자가 달리면서 갖게 되는 교육적 경험으로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준회원,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대학 강사 (제1저자)
접수일: 2021년 12월 31일, 수정완료일: 2022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월 8일

Received: December 31, 2021 / Revised: January 5, 2022
Accepted: January 8, 2022

*Corresponding Author: ryt11 @daum.net
Dept.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AIST, Korea

학습 의미와 경험을 능력으로 보고, 이 능력이 연관된 학습을 할 때 영향을 미쳐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나선형 구조를 전제로 한다[1].

이 연구는 ‘과정 중의 교육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 Pinar(2004)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어교육에서 ‘과정’으로서 주목해야 할 대상과 학습자는 없는지 검토한 후,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필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사각지대 어휘로는 신조어를, 사각지대 단계의 학습자로는 학문 목적 학습자를 들고, 한국어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신조어를 가르치기 위한 학습 자료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먼저 이 연구의 대상으로 ‘신조어와 학문 목적 학습자를 선택’한 이유를 밝히고, 다음으로는 학문 목적 학습자가 신조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신조어를 목록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그간 한국어 어휘교육에서 구축한 결과물에 ‘과정’으로 학습으로 할 어휘를 추가하여 한국어 어휘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II. 문제 제기

이 절에서는 그간 학습 결과물인 교육용 어휘 목록을 만들고 가르치느라 어휘 목록에 넣지 못한 빠트린 사각지대의 어휘는 없는지, 학습 단계에서 사각지대의 학습자는 없는지 살핀다. ‘과정 중의 교육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어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서 ‘신조어’를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할 이유를 밝힌다.

1. 신조어 교육 필요성

우리는 국어교육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에서도 무분별한 어휘 생산 및 언어 질서 파괴 등의 문제를 부각시키며 신조어의 형성과 교육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새로운 단어의 급격한 출현은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세대·성별·직업을 기준으로 한 집단 간의 단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2]. 국어교육에서 이러하니 한국어교육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이러한 언어 현실을 무작정 무시할 수만은 없다. 게다가 신조어는 대부분 생명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소비어휘’인 것이 사실이며, 신조어를 결과물로서 바라보았을 때 ‘낮설고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

국내 학문 목적 학습자인 유학생 대부분은 10~20대이고 인터넷과 뉴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정보를 얻는다. 황춘혜(2020)는 유학생 학습자를 위한 기본적인 어휘들은, 체계적인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재에서도 충분히 구현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여러 한국어 사전에서도 어휘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많은 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적극적인 학습 태도로 학습 지도를 잘 따라가면, 어휘를 학습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조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한국어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등재가 되었더라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학습자 입장에서 학습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 학습자의 요구는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드러냈다[3].

신조어는 조어론적인 면에서 생산적인 조어소가 나타나 일정한 일관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 모습을 표출하려는 언중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회의 문화를 읽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도구가 된다. 다시 말해 결과물로서의 대상이 아닌 그 생성 과정까지도 어휘학습 전략으로 이용한다면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다. 신조어 교육은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 신조어를 통해 한국의 경제, 교육, 정치, 사회 등 한국 문화의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으며 한국어 학습에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에서 신조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신조어의 교육 범위는 일상생활에서 언중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와 한국의 문화 현상을 대표하는 신조어를 가르쳐야 하는 주장이었다[4]. 이렇듯 신조어는 최근 한국 사회문화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한국어교육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교수-학습, 교과 과정 혁신 등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밖에도 황춘혜(2020)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입장에서 신조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신조어 교육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신조어의 학습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한국 문화의 다양한 양상을 접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고 배움에 대한 관심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신조어를 형성하는 방법을 통해 어휘의 의미와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2. 학문 목적 학습자 대상

현재 국내 대학에 제학 중인 유학생들은 국내에서 1-2년 동안의 언어연수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언어연수 과정에서 먼저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중심의 학습을 한다. 중급 단계에서는 국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한국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토픽 시험에 응시하여 주로 토픽 3-5급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 학습자는 잘 설계된 어휘를 학습하는데, 그 어휘들은 대부분 교육용 어휘로 선정된 것들 내에서 이루어진다.

대학에 진학한 학문 목적 학습자의 어휘 범위는 한층 넓어져서 학습자들은 ‘범진공’ 영역, ‘진공 기초’ 영역, 그리고 세부적인 전공과목에서 사용되는 ‘전공’ 영역, 그리고 범학문적 수학 기능 등을 반영하는 어휘를 배운다[5].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주로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동료로서의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의사소통을 위한 어휘를 학습해야 한다.

이때 학문 목적 학습자들은 한국 대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공유하고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들은 주로 교육용 어휘에 치중하여 학습했기 때문에 언어를 교류하면서 다양한 면에서 ‘부족’을 느낀다. 그 부족은 바로 한국 대학생들과 언어적인 ‘공유, 공감’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그중 하나로 든 예가 바로 신조어와 유행어 등이다. 이들이 언어연수 과정생이었을 때는 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어휘를, 대학에 들어와서는 학문 목적 어휘를 계획된 교육과정에서 배웠다. 그러나 학문 목적 학습자가 되어서도 한국 학생들과 공유할 의사소통에 필요한 어휘가 필요한데 이들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그간 ‘엄선된’ 교육용 어휘만 학습하던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교육용 어휘에 포함되지 않은 ‘교재 밖’ 어휘를 학습할 필요가 생겼고, 시기가 되었는데 막상 학습하려니 그것은 학습자들이 의존하는 사전에도 나오지 않고 교육 단계상으로도 교육받을 기회가 없다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어휘를 탐색하는 과정으로서의 어휘교육 모형을 세우기 위해 사전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스스로 학습하기 어려우면서, 생명력도 길지 않은, 그러나 배우려는 학습자 요구가 있는 신조어를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가르치고자

한다. 학문 목적 학습자는 이미 쌓은 어휘 능력과 어휘 전략을 이용하여 어휘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안에 담긴 문화를 탐색하는 과정 학습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III. 신조어의 교육적 가치

1. 어휘 확장을 보여주는 신조어

바람직한 어휘교육은 학습자가 단순히 단어의 형태와 의미만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 생성 기제를 이해하여 스스로의 조어력을 향상시키고, 목표어의 문화를 습득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어교육에서 어휘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교수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 지식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신조어는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여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신조어에는 파생과 합성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최근에는 ‘혼성’의 유형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신조어의 조어 특징 때문에 신조어의 조어법에 파생어, 합성어 외에 ‘혼성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 연구도 있다[6].

어근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어 생성된 신조어는 흔하다. 신조어에 쓰이는 접사는 전형적인 접사의 특징 외에 다양한 어근과 결합하기도 하며, 두 개 이상의 접사가 중첩되기도 한다. 그 의미 영역도 넓어져서 전방위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에 신조어에서는 접사 대신 ‘조어소’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7]. 파생은 신조어 형성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조어 방법이므로, 접사의 쓰임과 의미를 가르친다면 많은 어휘를 가르칠 수 있는 어휘 확장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합성도 신조어에 자주 사용되는 조어 방법이다. 최근 신조어의 특징은 단일어로 나타나기보다는 동일한 유형으로 어휘를 조어하는 특징이 있다. 나아가 신조어 중에는 단어뿐만 아니라 구, 문장 등을 절단하고 합성해서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것이 많으며, 고유어나 외래어에서도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두자어나 혼성어인데 이들은 결합할 때 형태가 줄어든다. 이렇게 줄여서 만든 신조어의 사용 환경과 빈도수가 예사롭지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 신조어는 ‘별다줄’ 세상이 되어 언중은 ‘별걸 다 줄여’ 쓰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 신조어의 경향은 단순한 단어나 구가 아닌 문장 또는 상황 전체를 축약하여 하나의 단어 형식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8].

(1)은 ‘-세권, -린이’의 혼성어 예이며, (2)는 두자어의 예를 음절 수에 따라 제시한 것이며, (3)은 상황 전체를 축약하여 표현한 예이다. (3)은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들로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신조어’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이와 같은 형태도 ‘신조’의 한 유형이 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일단 신조어의 유형으로 제시한다.

(1) 대상 어휘 ‘-세권’

- ㄱ.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강세권, 공세권, 다세권, 병세권, 봉세권, 의세권, 편세권, 물세권, 뷰세권, 슬세권, 커세권, 스세권
- ㄴ. 요린이, 주린이, 갬린이, 골린이

(2) 두자어를 이용한 어휘 확대

- ㄱ. 열공, 마상, 떡방, 혼밥
- ㄴ. 열죽아, 당모치, 금사빠, 갑분싸, 말잇못, 입틀막, 자만추, 별다줄, 꾸안꾸
- ㄷ. 깎끼빠빠, 할많하않, 오점매추

(3) 상황 전체를 축약한 표현

- ㄱ. 사이다, 고구마,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 ㄴ. 무야호

(1)의 혼성어에서는 ‘-세권, -린이’을 분리해 내게 하고, 그것이 결합한 어근을 통해 새로운 어휘를 이해하고 생성하도록 해서 어휘를 확장시킬 수 있다. 혼성어에는 특정 조어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어휘 확장의 효과를 얻기가 쉽다[9].

ㄱ	ㄴ	ㄷ
자 인 아	금 은 림	자 은 아
만 추 만 추 만 추	사 빠 사 빠 사 빠	만 추 만 추 만 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다/추구하는 사람 은밀한 만남을 추구하다/추구하는 사람 어우나 만남을 추구하다/추구하는 사람

그림 1. 신조어의 조어론적 특징 찾기
Figure 1. Finding the prototypic features of neologisms

(2)에서 제시한 두자어를 이용하여 신조어의 조어론적 특징을 찾아내게 하려 한다면 그림 1과 같이 어휘를 묶어서 제시해도 좋다. 이 신조어들에 나타난 조어론적 특징을 찾게 할 수 있다. 그림 1은 두자어의 예인 ‘자/인/아만추’와 ‘금/은/림사빠’를 보인 것이다.

(2)는 (1)의 혼성어보다는 단기간에 어휘 확장 효과를 보기 어렵지만, 구나 문장을 줄여 쓴 것이므로 학습자의 문장 생성 능력을 키우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연구자는 (2)를 빈칸 채우기 문제로 재가공해서 수식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4)와 같이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부분에 빈칸을 제시해서 해당하는 어휘를 정확하게 쓰도록 지도한 결과 ‘마상’에서는 ‘마음 상처’가 아닌 ‘마음의 상처’로 쓰게 해 관형격 조사를 적절하게 익히고, ‘혼밥’에서는 학생들이 ‘혼자’를 ‘자기’와 구별할 수 있고, ‘꾸꾸꾸’에서는 부사 ‘꾸질꾸질’의 의미를 알게 하는 등의 어휘 지도 효과를 얻었다.

(4) 두자어 활용 예

- 열공 - (열심히) 공부하다
- 마상 - (마음의) 상처
- 혼밥 - (혼자) 먹는 밥
- 당모치 - (당연히) 모든 치킨은 맛있지.
- 금사빠 - (금방) 사랑에 빠지다
- 갑분싸 -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다
- 자만추 -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다
- 꾸꾸꾸 - 꾸며도 (꾸질꾸질)
- 깎끼빠빠 - (깎)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 할많하않 -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3)은 교육 필요성에 대해 먼저 점검을 한 후 교육 전략에 대해 고민할 문제이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

2. 문화를 반영하는 신조어

신조어는 형태와 의미 등에서 조어 당시의 문화를 드러낸다. 형태적인 면에서 몇 가지 문화를 읽을 수 있다.

우선 간결하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강해 두자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는 사회누리소통망서비스(SNS)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조어 형성에서 접두사(개-, 핵-, 최- 등)와 접미사(-족, -가 등)를 활발하게 사용하며,

혼성어를 많이 만든다. 그리고 두 개의 접두사를 겹쳐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

신조어가 표현하려는 내용이나 대상을 통해서도 몇 가지 특징을 읽어낼 수 있다. 우선 소재 면에서 ‘부동산(역세권 계열), 커피(아아), 치킨(당모치), 혼자(혼공)’ 등의 핵심어를 찾을 수 있다. ‘부동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나올 것 같다. 이 이외에도 ‘반려동물, 코로나-19’ 등과 관련된 신조어도 많은데, ‘코로나-19’ 신조어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어휘의 신조어뿐만 아니라 이른바 ‘야민정음, 야맹정음’으로 분류되는 한글을 이용한 ‘언어유희(글자유회)’ 등도 많이 등장했다.

IV. 한국어 교육용 신조어 자료 구축 방안

한국어교육에서 신조어는 주로 신조어 교육의 필요성(이래호 2011), 신조어 목록 선정(이현정 2021, 장경현 2019), 문화교육(전경운 2018)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10]. 이 중에서 신조어 목록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해마다 발표되는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거나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 기간을 설정하고 여러 포털 사이트에 나타난 신조어를 추출한 후 특정 어휘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조어 목록 작성은 특정 대상 선정해 연구자 개별적으로 다루기는 했으나, 이를 통합하여 목록으로 구축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학문 목적 학습자는 다양한 어휘학습 전략을 사용하여 어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 수준이 된다. 그러므로 앞서 밝힌 대로 학습 단계상 빠진 신조어를 자료로 구축해서 학습 자료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자료 구축의 대표적인 예로는 교재와 사전 등을 들 수 있는데, 교재는 신조어가 갖는 생명력을 고려해 볼 때 그 효용성에 한계를 갖는다. 나중에 신조어 사전을 만들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신조어를 목록화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은 신조어 사전을 하나 소개한다. ‘독일어 온라인 어휘정보시스템 Online-Wortschatz-Informationssystem Deutsch, 이하 OWID’은 독일의 학술적 사전 연구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라이프니츠-독일어연구소에서 제작한 전자사전 포털이다. OWID는 단순한 사전 포털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언어 자원인데, OWID의 핵심은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구조화한 것이다. 이 포털은 전자사전 10개의 네트워크화를 추구하는데, OWID에 링크된 언어 자원 중 하나가 신조어 사전이다. 이것은 독일어(외국어)와 번역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용어 연구, 지역학 및 문화 교육 등에 활용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11]. 아래 그림 2는 현대 독일어 온라인 사전의 한 항목인데, 사전에서 표시한 파란색이 신조어 사전과 연계되어 있어 이것을 누르면 신조어 사전이 활성화된다. 신조어 사전에는 탭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에는 뜻풀이 예문 구획, 언어, 관련 표현이 두 번째에는 문법 정보와 조어 생산성 정보가, 세 번째에는 추가 정보가 있다. 추가 정보에는 백과사전 등이 연계된다.



그림 2. OWID의 신조어 사전
 Figure 2. OWID's neologism dictionary

다음 그림 3은 연구자가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나만의 사전 만들기’를 시도한 결과물 중 일부이다. 두자어 ‘입틀막’을 예로 제시한다. 학습자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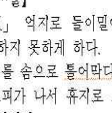


1) 입틀막	2) [입틀막]	모르는 내용 정리하기	
3) 입을 틀어막다	4) AB(C)유형	틀어막다	
입틀막		「동사」 【...음】 「1」 억지로 들이밀어 넣어 통하지 못하게 하다. ·귀를 손으로 틀어막다. ·코피가 나서 휴지로 코를 틀어막았다.	
5) 놀라서 벌어진 입을 막을 정도로 억착오를 때 쓴다.			
		6) 카디션 너무 예뻐서 입틀막. (2021. 9. 19.) — 해당트POP 2021.10.25. 내이비뉴스 “국민가수” 지세희씨임지수, 속 불리는 고음 대결. 입틀막 무대 예... “이것은 오디션 결연인가, K-POP 콘서트인가?” 국민가수 마스터들이 참가자들의 시합을 긴 팀 미션 무대에 앞무 입틀막을 시전한 4회 예고 영상이 공개됐다. TV...	
7) 등장한 시기	20**, **, *	8) 사용 시기	20**, **, * 20**, **, *

그림 3. 나만의 신조어 사전 만들기 견본(‘입틀막’)
 Figure 3. Sample of creating your own neologism dictionary ('Iptelmak')

전본을 제시하고 1) 표제어, 2) 발음, 3) 단어 의미, 4) 조어 유형, 5) 표제어의 의미, 6) 쓰인 예(이미지, 문장, 기사 모두 가능)를 찾아 적도록 하였다. 학습자가 만든 신조어 사전은 실제 사전을 만들었을 때의 효용성을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 3에서 7) 등장한 시기와 8) 사용 시기는 학습자가 하기 어려운 것이나 본격적인 사전을 만들 때 들어가야 할 항목이라 추가한 것이다. 우선은 해당 단어를 작성하는 날짜를 7) 과 8)의 자리에 넣도록 하였다.

신조어는 그 어휘의 탄생 자체가 그 당시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 나름의 체계성을 갖고 조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록을 만들어 정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그 생명력이 길지 않으므로 특정 시기를 정하여 목록화할 것을 제안하는데, 연구자는 이를 ‘단층적 목록’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일정 시기에 나타난 신조어를 정리한 것이므로 ‘단층적’이라고 했으며, 조어상이나 의미상으로 묶어 제시할 것을 권한다는 의미에서 ‘목록’이라고 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교육용 어휘 목록은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그 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신조어는 시의성이 생명이므로 그 변화의 폭이 넓어 이를 반영한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한 ‘단층적인’ 어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조어 자료에는 유형, 배경, 의미 분석 등이 들어가야 할 것이므로 이 어휘 목록 안에는 의미, 문장, 조어법, 문화 등을 기록해 둔다. 의미, 문장, 조어법을 설명 항목에 넣은 것은 일반 사전과 같지만 여기에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그 어휘의 등장이나 사용 ‘배경’을 추가하고자 한다. 단어의 의미만 학습하는 것보다 그 단어의 문화적 배경을 안다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해당 신조어가 쓰이는 상황과 문장 등을 제시함으로써 암시적인 어휘 지도를 검할 수 있다. 이미지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어휘 전략상 문맥을 통해 익히도록 해야 효과가 크므로 해당 신조어가 사용된 문맥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명시적 어휘 지도와 암시적 어휘 지도를 절충하게 되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일단 자료로 구축된 신조어는 어휘 형성별, 주제별, 시기별로 기준을 정하여 분류하여 학습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특정 시기에 쓰인 신조어를 알고 싶다면 시기를 기준으로 분류한 목록에서 찾으면 된다.

V. 결론 및 제언

신조어는 한국어를 즐기면서 배우고 당대 문화를 향유하고 누리게 한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신조어를 가르쳐야 할 필요성과 교육적 가치를 검토한 후, ‘단층적 목록’을 만들어 신조어를 목록화하여 정리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어 교육용 신조어 자료를 목록화하려면 대상 어휘를 선정하는 기준부터 쉽지 않다. 예비 신조어의 선택, 전문가 집단을 통한 검증 등 다양하나 우선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교육적이어야 한다.

현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든 신조어 사전들이 없지는 않으나 이들은 의미를 설명한 수준의 것이다. 교육용 신조어 자료를 구축하는 이유는 이전에 학습한 어휘 능력을 바탕으로 어휘를 확장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며, 나아가 신조어에 반영된 한국 문화를 스스로 읽어내는 자가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거칠게 제시한 연구자의 제안에 할 일이 많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 신조어 사전만 소략하게 보이고, ‘단층적 목록’ 만들기만 제안하였으나, 신조어 목록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등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또 남은 과제는 과거 유행어, 드립 등으로 나타나던 대중의 신조어 문화가 최근에는 ‘밈’으로 나타나 확산되고 있다. 최근의 밈 문화에서는 ‘당근을 흔들어서요, 무야호’처럼 맥락 전체가 결부된 어구나 문장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비언어적 행위나 이미지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한류와 더불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특정 상황을 새롭게 표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이 단어 수준이 아닌 어구나 문장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신조어의 범위에 넣어야 할지 ‘신조어구’라는 특정 용어를 설정해야 할지 고민이긴 하나 이러한 ‘밈 현상’도 넓은 의미로는 신조(어)의 범위에 포함하고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듯, 시대의 열망과 세태를 반영한 신조어들은 소임을 다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뿐이므로, 신조어가 미칠 부정적 영향은 뒤로 하고 신조어가 가진 특징을 우리의 필요만큼 한국어교육 도구로 이용하면 어떨까 한다. 신조어 목록을 정리하여 제공한다면 학습자 스스로 교육 ‘과정’ 속에 들어가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H. S. Ji, "A New Exploration of Cultural Curriculum Research in Korean Education - Beyond So-called 'Multicultural Educatio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Vol. 17, No. 1, International Society for Languages and Cultures of Korea, pp. 261-290, 2010.
- [2] D. R. Jeong,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Formation and Frequency of New Words," Hangeul No. 310, Korean Society of Korean Studies, pp. 171-204, 2015.
- [3] C. H. Hwang, "A Study on Teaching Methods for New Korean Language as a Cultural Vocabulary: Targeted for Intermediate and Advanced Students of International Students,"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20.
- [4] R. H. Lee, "A Study on New Language Teaching Methods in Korean Education," Linguistics Research No. 20, pp. 155-178, 2011.
- [5] M. K. Kim, "A Study on Items of the Korean Curriculum for Foreign Learners,"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alism, Vol. 7, No. 1, pp. 134-160, 2017.
- [6] M. H. Noh, "Characteristics of abbreviations and integrated hybrid words appearing in new words," Korean Linguistics No. 91, pp. 27-56, 2019.
- [7] H. J. Lee, "Study on the selection of neologism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trend of coining power and frequency of neologisms," Language Facts and Perspectives No. 36, Yonsei University Language Education Information Center, pp. 99-212, 2015.
- [8] K. H. Jang, "A Study on the Form and Meaning Characteristics of Neologism Affiliates," Open Mind Humanities Research, Vol. 20, No. 1,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ity, pp. 311-336, 2019. DOI : 10.22845/wjoh.2019.20.1.012
- [9] D. S. Kim, "A Study on the Method of Teaching New Words Using Flip Learning in Korean Education," Linguistics Research No. 108, Linguistics Research Society, pp. 195-221, 2021. DOI : 10.17297/rsl.2021.108.008
- [10] K. Y. Yoon, "Research on Korean New Language Education Using Cultural Categories," thesis on master's degree at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8.
- [11] K Kim, "How to Educate Foreign Languages of Dictionary Encyclopedial Information of OWID, German Vocabulary Information System," German Literature No. 90, pp. 285-308, 2020.
- [12] J. I. Kee, "Study on Effective Extraction of New Coined Vocabulary from Political Domain Article and News Comm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2, pp. 149-156, 2021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1.7.2.149>